

제10회 나이팅게일 음악회를 마치고

나이팅게일 탄신 150주년 기념

대한간호학생회장 김 용 순

꿈이 열리는 계절

푸른 꽃짜기마다 흘러 내리는 여울물에 가슴 적시며 꽃나무 숲에 앉아야겠습니다.

화사한 햇살 아래

잠시, 분주한 일들일랑 멈추고.....

여기, 나이팅게일의 맑은 화음이 이루어지는 숲에서 꽃눈을 맞으며 귀 기울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정겨운 선율로 가슴을 살찌우고 우리 더욱 고운 마음이 되는 겁니다.

부디 오셔서 훌륭한 음악회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초대와 말씀으로 시민회관 무대의 자칫 빛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들려 선 합창단원과 무대 뒤의 준비 임원들은 객석과 호흡이 맞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회미한 조명을 안고 선 나이팅게일 후예들의 손에 들려진 촛불은 첫 무대를 밝히우는데 충분했고 모든 이를 충고한 마음으로 이끌게 했을겁니다. 엄숙하고 고요한 속에서 나이팅게일 선서는 시작 되었고.....촛불은 하나 들 끼치고 드디어 밝은 조명이 무대를 비추었습니다.

지휘자가 절어 나오셨고 인사가 행해졌고 그리고 화음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3월 부터 시작된 연습에서 13곡이 정해지고 그 곡들이 들려질 수 있기까지의 모든 이의 열성은 나타나야만 했습니다.

문 앞의 안내를 맡은 각 학교 대표들, 언제부

터 언제까지는 무슨 색 조명, 그리고 언제는 끄고.....등을 조목조목 의고 있는 임원 한 사람, 음향실의 녹음기를 다루게된 임원, 한 Program 한 Program 이 진행 되어가도록 무대 진행 및 감독을 맡은 임원과 쥐어진 복잡한 Memo 속의 Program, Decreation 은 언제 붙인 후 다시 교정 불 작정 이었는데 그 다음날 공연할 Team 의 예행 연습이 지연 되는 덕분에 늦어졌단 말야 하며 흥분해하던 그 Part 임원.

그러나 잘들도 진행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혹시 내 목소리가 무대 밖으로 흘러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는 소리를 지른 후 었다고 고백(?)하는 감독의 신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Evaluation 때 찬조 출연했던 분의 또 한 가지 고백은 자기는 무대에 아무리 서도 그런 적이 없는데 시민회관 객석에 꼭 찬 관중을 보자 인사를 마친 후도 떨리더라는 것.

후배들이 다음 다음 계속 나이팅게일 음악회를 가질 때 도움이 될까하여 연습 기간 중의 느낀점들과 Evaluation 시간에 가졌던 생각들을 말할까 합니다.

우선 합창단원의 구성 문제에 있어서는 각 학교의 희망자로 구성하되 학과장님이나 교장님의 추천을 받도록하여 연습하는 날의 evening duty 의 양해를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날의 공식으로 인한 단원이나 임원 그리

고 지휘하시는 분의 사기 저하는 실로 보기 민망했고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가지 합창 단원에게 주의를 요하는 것은 Stage manner로, 화음은 썩 좋은데 몇 군데의 어색한 태도가 관중의 눈에 띄어 완전한 효과를 보지 못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합창 연습이 시작되면 적어도 공연 2~3일 전까지는 모든 manner를 일러주어 품위있는 자세를 몸에 익혀서 실수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기억할 일은 연습전에 Vocal group이나 solo 출연자는 audition을 하여 선정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지방 참가 학교에 있어서는 audition을 할 수가 없으므로 참가 공문을 보낼 때에 그 점을 강조하던가, 수준을 정해 놓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수준에 달하는 음악회를 갖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은 듯 합니다.

다음으로 섭외 활동에 있어서 장소 선정, 후원, 광고등의 문제는 가장 일찍 서둘러야 할 것들인데 각곳에 부탁드릴 후 해 주셨지 하는 믿음으로 자주 찾지 않으면 상대에서 잊을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확실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번 찾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무대 준비에 있어서는 결정되어 사용 허가 통지서들 받은 후까지는 안심이 안되는 것이었는데 준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공연 3일 전에는 현지에 가보고 점검해보고 우리가 필요한 것중 무

엇이 준비될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일일이 체크하여 충분히 마련했다 해도 어떤 것은 빠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연습 기간 동안 얼마만큼 단원들의 열의와 관심을 모아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 생각 키우는 일로써 얼마만큼 조바심을 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차근차근 진행시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었으니까 결과가 있으리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단지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는 것 같습니다.

Program을 보내 드리며 초대하는 면에서는 꼭 우리 간호회에만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고무 보내드리어 도실 수 있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10회 음악회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께 칭찬의 말씀을 전해 들어도 준비한 저희들은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은 욕심이 많은 탓인가 봅니다.

자꾸 자꾸 반복해서 감사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저희가 공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서울의 각 학교장님과 과장 선생님, 대한간호협회, 서울시지부, 또 연습장소로 승낙해 주신 우석 의과대학 간호학과.

끝으로 빠뜨릴 수 없는 윤치호 지휘자 선생님께. (*)

알 림

독 간호원 강습회

대한간호협회 서울시 지부에서는 오는 7월20일경부터 독간호원 강습을 개최 예정인바 대상은 직장을 갖지 않은 회원이던 우선적으로 접수 합니다.

- 구비서류: 1. 이력서 1매 (사진 반명함판 첨부)
2. 70년도 간호협회 회원증

••• 선착순 접수 (약 30명 정도)

적극 취업 알선

기타 상세한 것은 (52) 0490 으로 문의 하실것.